

“지뢰밭도 끄떡없다”

현대로템, 장애물개척전차 수주

방사청 3000억 규모 수주 따내
국내 첫 장비... 지뢰제거 탁월
2023년까지 군에 납품키로

현대로템이 장애물개척전차 추가 양산사업과 구난전차 및 교량전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2366억원 규모의 장애물개척전차 양산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11월 수주한 1746억원 규모의 양산사업에 이은 두 번째 수주다. 이번에 수주한 장애물개척전차는 오는 2023년까지 군에 납품할 예정이며 전량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생산된다.

이번 사업의 수주는 방위사업청이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의 적극행정을 실현해 연말 발주 예정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당겨 추진한 산물이다.

장애물개척전차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로 전방에서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차체 전면의 지뢰제거장기를 이용해 땅을 갈아엎어 묻혀 있던 지뢰를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며 자기감응 지뢰 무능화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자기감응지뢰도 제거할 수 있다.

차체 상부에 부착된 굴삭팔에 굴삭용 키트나 파쇄기를 장착해 참호, 방벽



현대로템 장애물개척전차

등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굴삭팔은 크레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무거운 장비를 인양하고 운반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 차량 후미 좌우에 안전지역 표시를 위한 표시막대 발사 기능을 갖춘 통로표식장비를 1개씩 장착해 군 병력의 안전한 기동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 제거 능력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등 대량의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뢰 제거간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임무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차체 방호력을 갖춰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뢰 제거 작업이 가능하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난 2014년 현대로템이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된 이후 4년여에 걸쳐 개발됐으며 기계화 부대

의 신속한 작전수행을 지원한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수주한 장애물개척전차는 현재 생산 중에 있으며 올 12월 전력화가 될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우리 군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물개척전차를 작기에 납품해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K2전차, 차륜형장갑차 등 기존 제품들과 더불어 방산부문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26일엔 방위사업청과 632억원 규모의 구난전차 및 교량전차 창정비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창정비란 노후화된 전차를 분해해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해 신차급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비 단계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소부장 강화 4기 기술혁신기업 3곳 선정

2년간 제품 공동개발 등 지원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지원을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6월 30일 4기 기술혁신기업 3개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주)세믹스,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주)에버텍엔터프라이즈 등이다. 외국기업 점유율이 높은 분야에서 국산화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SK하이닉스와 제품을 공동개발하게 되며, SK하이닉스 생산라인에서 개발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기회도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개발기간 단축과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일정 물량 구매를 보장받고 무이자 기술개발 자금대출 지원 및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세믹스는 웨이퍼 신뢰성 테스트용 장비를, (주)엘케이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부품을 생산한다. (주)에버텍엔터프라이즈는 후공정 과정에서 칩과 기판의 연결에 사용되는 물질인 플러스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3개 기술혁신기업을 선정해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대표,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주)에버텍엔터프라이즈 한태수 대표, (주)세믹스 김지석 대표. /SK하이닉스

소재 업체다.

협약식에는 이석희 CEO와 세믹스 김지석 대표, 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대표, 에버텍엔터프라이즈 한태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실을 분리해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술 협업을 통해 양사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상생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재용 기자 juk@

가락시장, ICT·AI 등으로 스마트하게

SK(주)C&C, 스마트마켓 사업 착수

가락시장이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만나 스마트 마켓으로 변모한다. SK(주)C&C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 종합계획 연구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수산물 산지 수확부터 배송, 하역, 거래, 품질 검사 및 도소매 판매 등 유통 전 과정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장’ 청사진을 수립한다.

스마트한 농수산물 유통으로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화상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하

고 유통 비용은 줄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이력제와 온·습도 센서 조절 장치 등 콜드체인을 도입한 농수산물 신선도 관리 시스템은 고품질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전동 지게차와 AGV(무인 이송차)가 시장 내 물류 효율화를 지원해 하역, 이송, 배송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유통정보시스템은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생산 자료부터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형·비정형 유통 데이터를 활용한 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도매유통에서 물량, 가격 등 유통정보를 제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준다. 이는 가격 안정화에 직결된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현대오일뱅크의 장애·비장애 문턱 낮추기

‘배리어 프리’로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감상

‘배리어 프리 영화’ 주제 토크쇼
“장애·비장애 장벽 허물어야”

현대오일뱅크가 장애와 비장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서울 남대문로 서울 사무소의 8평 남짓한 회의실에서 평소 영화를 좋아하던 이들과 함께 ‘영화살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영화 ‘여고괴담’과 ‘간신’ 등으로 알려진 민규동 감독과 배우들이 현대오일뱅크 직원들과 만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배우들의 대사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주제로 선정됐다.

말 그대로 장벽 없는 영화라는 뜻을 지닌 배리어프리는 기존 영화에 음성과 화면해설을 입혀 시청각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영화다. 이 같은 토크쇼는 국내 최초의 시각 장애인 아나운서 이창훈과 배우 오하늬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럴론은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민규동, 허인무 감독이 참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2005년 박찬욱, 류승완, 봉준호 등 당시 소장파



현대오일뱅크가 6월 서울 남대문로 서울 사무소에서 영화 토크쇼를 진행했다. /현대오일뱅크

감독들이 주도해 만든 단체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과 힘을 모아 진행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사업은 영화도 장애와 비장애의 문턱을 낮추자고 뜻을 모은 영화감독조합의 첫 번째 사회공헌 사업이다. 감독조합과 1%나눔재단은 올해 1월과 3월, 영화 ‘감쪽 같은 그녀’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제작한 바 있다.

민규동 감독과 영화 ‘감쪽 같은 그녀’를 연출한 허인무 감독은 농어촌 지역 맹학교에서 시사회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1%나눔재단의 도

움을 받아, 토크쇼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1%나눔재단은 두 편의 배리어프리 영화와 토크쇼 영상을 전국 맹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감독조합의 협조를 얻어 내년 초까지 최소 2~3편의 배리어프리 영화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은 2011년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1% 급여 나눔에서 시작됐으며, 올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 계열사 임직원이 동참해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QLED TV 10년 전 가격으로 만나세요”

삼성전자 ‘보상판매 특별전’

삼성전자가 14년 연속 글로벌 TV 판매 1위를 기념해 QLED TV 구매자에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QLED 보상판매 특별전’을 실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구형 TV를 반납하면, QT80시리즈 이상 2020년형 QLED TV 구매 고객에 최대 100만원 상당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반납하는 TV는 브랜드나 연식 등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10



삼성전자는 QLED 보상판매 특별전을 진행한다.

년 전 풀HD TV 40형을 살 수 있던 금액으로 2020년형 QLED TV 65형을 제공한다는데 목적을 뒀다. 소비자들에 10년전 가격으로 더크고 압도적 화질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김재용 기자